

논술리더1	오늘은 2012년 8월 일 요일입니다.	
한우리 독서논술	사잇소리현상 - '봄비'와 '나뭇잎'의 공통점은?	히름 :

사잇소리현상이란?

'봄비'는 [봄뵤]로 소리 나고, '나뭇잎'은 [나문닙]으로 소리나. 이와 같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,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'ㄴ'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. 이러한 현상을 '사잇소리현상'이라고 해.

사잇소리현상은 언제 일어날까?

우선 '등불[등뵤]'과 같이,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,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,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. '등불'은 두 어근 '등'과 '불'이 합쳐진 합성어야. 그런데 '등'의 'ㅇ'은 울림소리이고 '불'의 'ㅂ'이 안울림 예사소리이니까, 뒤의 'ㅂ'이 '뵤'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거야.



그리고 '숨이불[숨니불]'과 같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, 'ㄴ'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. '숨이불[숨니불]'은 '숨'과 '이불'이 합쳐져 '숨이불'이 되면서 'ㄴ' 소리가 덧나는 거야.



사이시옷은 언제 붙여 쓸까?

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는 말 중,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 사이시옷을 붙여 써. **예를 들어, '초'와 '불'이 만나면 [초뵤]로 소리나. 'ㅂ'이 된소리가 되는 거지. 이럴 때, 끝소리가 모음인 앞말 '초'에 'ㅅ'을 붙여서 '촛불'이라고 써. 그리고 '비'와 '물'이 만나면 [빈물]로 소리나. 'ㄴ'소리가 덧나는 거지. 이럴 때 '비'에 'ㅅ'을 붙여서 '빗물'이라고 써.

